

‘쉐어’, 고통과 희망의 경제학

김은하

1. 청년 여자의 이야기

19세기 말 영국의 소설가 토마스 하디는 『비운의 주드』에서 청년 주드의 삶을 ‘꿈꿀 권리도 없는 젊음’이라고 한 바 있다. 석공인 주드는 젊지만 그의 삶은 가난과 희망의 부재로 훼손되어 있다. 그는 결국 현실의 개선책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 생을 몰수한다. 이렇듯 ‘짧고 억눌린 젊음’은 젊음에게 주어진 특권, 즉 자율적인 자기형성의 시간을 빼앗긴 노동계급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더 이상 꿈꾸지 않는/못하는 젊은이의 존재는 오늘날의 새로운 주제가 되었다. 오래 전 노동계급에게 주어진 명에는 이제 21세기 평범한 젊은이들 대다수에게 지워졌기 때문이다. 젊다는 것은 더 이상 ‘청춘,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라는 감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얼마 전 JTBC에서 방영한 《청춘시대》는 환한 빛의 정오인 양 환하고 밝기는커녕 저물녘의 어둠처럼 쓸쓸하고 불안한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특히 이 작품은 젊고 아름답기 때문에 관음의 대상이 되어온 여자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간 청춘의 성별(gender)은 남성으로 규정되어왔기 때문에 청년기 여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젊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유도된 데 방송문화의 영향력도 없지 않다. 특히 드라마는 젊은 여성들이 주요 관객층임에도 여성들을 시각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고, 가부장적인 사회가 권장하는 성역할이나 규범적 여성성을 문화적으로 이상화해왔다. 청춘 여자의 갈등과 방황은 연애 갈등으로 환원되고, 실장님이나 재벌 같은 재력을 가진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듯한 착각마저 유발했다. 이는 사회가 청년 여자들과 공감에 실패해왔음을 뜻한다.

2. 트라우마 세대의 청춘기

언뜻 보면 《청춘시대》는 진부해보인다. 아름다운 쉐어하우스와 젊고 예쁘기까지 한 여대생들의 동거기는 이 작품을 소프트한 청춘물로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드라마의 회가 늘어나면서 이 작품이 그저 어느 시대나 볼 수 있

는 명랑한 활기가 넘치는 장르물이 아님을 알게 된다. 서로의 맨 얼굴을 보게 됨에 따라 낯선 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는 관객에게 청년 여자가 아름다운 얼굴 뒷면에 감추어둔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과 모멸감을 마주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라마의 배경인 ‘쉐어하우스’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쉐어하우스란, 최근 이동이 보편화되고, 신자유주의 경제불안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등장한 청년층의 도시형 대안 주거의 모델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쉐어하우스는 단지 새로운 주거의 형식에 머물지 않는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여러 명의 동거인들은 갈등과 불화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서로에게 기대 성장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관객 역시 무방비 상태로 청년 여자의 이야기를 그저 들여다보다가 어느 새 이들이 남같지 않게 여겨지는 낯설지만 따뜻한 경험을 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안한 경제 상황은 우리 모두 생존의 전장으로 내몰면서 내면을 강박하게 만들고 있다. 생존이 최고의 정언명령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정이나 공감 같은 도덕 감정들은 무겁고 화려해 걸리적거리기만한 장신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사실 인간은 타인과 함께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홀로주의 문화는 그다지 이상적인 것으로 추앙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문화적 유행을 주도하는 ‘혼술’ ‘혼밥’ 등 홀로주의 문화는 그간 한국인들이 개인성, 개인주의를 인정받지 못하고 집단 속에서 자기를 감추어야 했던 데 따른 자유의 표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저녁이 없는 삶’이나 결혼, 취업, 아이, 친구마저 포기한다는 ‘사포 세대’ 같은 신조어들이 암시하듯 우리 시대가 타인과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이 혼자 문화가 탄생한 진짜 이유이다. 친구가 없는 삶은 덜 좋을 뿐이지만 생존 안전망을 확보하지 못해 서울역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은 최악이기 때문이다. ‘혼자’는 경제불안의 시대에 개인이 상처받지 위해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강요된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로 설 수조차 없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자지향적이다. 우리가 고독하고 이기적인 혼자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 느끼는 공감은 그 불행의 크고 작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기울인 감정에 의해 측정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그저 타인이 비참하다고 해서 타인의 고통 밖에 있는 사람이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처에 충분히 마음을 기울여 자신의 것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작품은 작중인물들의 내면 속에 자리한 트라우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감으로써 관객의 인물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작품이 비록 낮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았던 것은 공감형 스토리텔링과 이에 화답하는 충성도 높은 시청자 집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단지 젊고 아름다운 배우나 연애서사가 아니라 다섯 명의 작중인물들의 내면의 상처이다. 청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들은 표피적인 사건 너머를 인물의 삶에 깊이있게 다다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이 신발장 귀신 모티브이다. 신발장 귀신은 젊은 여성들의 마음 속을 점령해있는 죄책감과 불안을 표상화한 문학적 의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작진은 마루 밑 어둠을 응시하듯 다섯 여자의 마음 속에 숨겨진 비밀들에 하나씩 풀어가는 플롯을 통해 관객이 그녀들의 삶을 그저 구경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들의 삶 속으로 침투하게 만든다.

각자의 인물들이 안고 있는 비밀들은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트라우마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강이나의 이야기는 상징적이다. 강이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배 사고가 난 후 겨우 구조되어 살아돌아온 생존자이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남은 자, 구조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삶과 자기를 방치한다. 그녀는 돈 많은 남자들과 원나잇 섹스를 즐기고 그 대가로 경제적 원조를 받으며, 명품을 소비하는 식으로 인생의 소중한 기회와 가능성을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은 매우 위악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물 속 어떤 소녀의 손을 뿌리친 후 자신만 살아온 데 따른 죄책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된장녀’인 강이나는 회소 재화를 통해 타인에게 인정을 원하는 과시적 속물이 아니라, 자기 혼자 살고자 남의 생명을 외면하고, 그런 자기에 대한 재판관으로서 자기 식대로 자기를 벌주어온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90년대 이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최근의 세월호 같은 재난 사고들이 한국인과 젊은 세대들의 마음에 남긴 상흔의 의미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기성세대들에게 젊음은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고 식민주의의 잔재를 넘어서기 위한 기회이자 도전으로 여겨졌다. 성장의 목표는 뚜렷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대형 사고들은 사고를 지켜본 젊은이들에게 발전국가에 대한 신뢰를 앗아감으로써 성장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한 사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공간인 강남에서 일어났으며, 자연재해가 아니라 부실과 비리로 인해 벌어진 추악한 사고였기 때문이다. 재난은 언제나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목숨이고, 삶이 그렇게 믿을만한 것이 아니라는

허무의식을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드라마 속 윤진명처럼 식물인간인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가 없다면 기실 우리 모두 삶의 의미를 언제든 상실할 수 있는 허약한 존재인 것이다. 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삼풍 사건을 경험했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는다. 사건은 사람들의 삶 속에 쉬이 사사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고, 그것은 문화적으로 상속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재난이 위험한 것은 사람의 귀한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삶과 사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감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마저 시체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주체에게서 삶에 대한 열정을 빼앗고 그저 하루하루를 건디는 무기력한 삶의 태도를 가져다 주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특정한 경험의 유무를 넘어 일종하게 트라우마적 불안과 허무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강이나의 이야기는 피로를 넘어 소진 중인 운명의 이야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듯 보인다. 두 사람은 매우 다른 듯하지만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한다. 두 사람 모두 왜 이토록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운명이 동생이 죽자마자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단지 죄책감때문은 아니다. 동생의 죽음으로 그녀를 삶에 묶어두었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의 나머지 삶은 잉여가 된 것이다.

물론 이 작품에서는 하나도 아프지 않는 듯 보이는 인물도 있다. 정예은과 송지원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렇다 할 트라우마도 없는 듯 보인다. 즉, 그들은 '정상적'이고 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송지원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놀래키고 싶어하는 허언증자이다. 그녀의 거짓말은 그녀가 삶의 어떤 비밀을 파는 존재, 즉 기자든 작가이든 글쓰는 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암시일 수 있다. 그러나 그녀가 유은재에게 정예은의 가짜 쌍둥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서 엿볼 수 있듯이 누군가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다 제각각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아직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맞닥뜨릴 용기가 없거나,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아마도 자기 안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은 젊음에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정예은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데이트 폭력의 후유증인 양 예은은 심리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그녀는 심리상담자에게 시종일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의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와 침묵은 그녀가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는 평탄한 삶의 주인이 아니라 되레 어떤 무거운 비밀이 그녀를 억누르고 있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청춘은 자기를 들여보내고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드라마 속 청춘들은 자신들을 명량한 젊

은이로 호명해 이데올로기 속에 가두지 말라고 말한다.

3. 이토록 희소한 여성 간 우정

무엇보다 이 드라마는 여성 간 우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희소한 사례에 속한다. 그간 드라마에서 보여준 여-여 관계는 ‘탁월성으로서 우정(philía)’을 결여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친구와 함께 하면 더 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다”, “최상의 정의는 우애에 바탕을 둔 것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는 말이 암시하듯 본래 우정은 이익과 쾌락에 종속되지 않는 탁월한(arete) 성격 간의 교류로서 특정 집단의 패거리주의로 시민사회가 붕괴되지 않기 위해 아테네 폴리스가 귀족 남성에게 요구한 윤리적 덕목이었다. 이는 법적 경제적 권리도 불확실한 가부장제의 타자로서 여성들 간의 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수직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취약한 측면 집단은 늘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해야만 자신의 생존이 확보되는 비루한 상태에 묶여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에게 우정은 원천적으로 가정하지 않으며, 우정은 역시 남성의 자질이라는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들의 우정은 종종 특정 집단의 패거리주의와 구별하기 어려우며, 남성들이 서로를 굳이 시기-질투하지 않는 것은 부, 권력, 지위 등 사회의 희소재화들이 협력하고 기다린다면 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정의 젠더를 남성화하면서 여성들 간의 관계를 혐오해서는 곤란하다.

그간 한국의 로맨틱 드라마에서부터 막장 드라마들은 일관되게 여-여 관계를 이상적인 남자를 둘러싼 경쟁 관계로 다루어왔다. 여성들 사이에 깊은 사랑이 넘칠 때는 엄마-할머니/딸-손녀 같이 세대 간 격차가 클 때나 가능하다. 여성 간의 관계는 천편일률적으로 질투-시기로 재현된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에게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를 확보한 남성은 욕망의 대상이며, 여성들은 그 남성에게 인정을 얻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구원자로서 남성을 지위버림으로써 여성들 간의 우정이 이야기될 수 있는 틈을 넓혔다.

물론 정예은은 강이나에 대한 선망과 시기로 그녀의 미워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움켜쥐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여 간 갈등은 여성의 본성으로 그려지거나 누가 착한 여자이고 누가 나쁜 여자인가를 가리기 위한 모티프로 제시되지 않는다. 정예은으로 하여금 강이나를 끊임없이 질투-시기하게 한 남자 친구의 바람기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얼굴이나 몸매 등 육체적 자본이 우월할수록 이상적인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이성애 연애 시

장의 교환질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예은처럼 외모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은 조강지처형 여성들은 강이나 같은 섹시하고 도발적인 제도 바깥의 탕녀들에게 늘 선망과 시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구원자로서의 남성을 제거함으로써 여-여 간의 인간적 관계맺음을 유도한다. 이 드라마가 신선한 것은 20대의 연애는 있지만, 그곳에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전능함의 남성성, 즉 백마탄 왕자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내 이름은 김삼순》 이후 로맨틱 드라마들은 똥똥하고 나이 많은 노처녀와 젊고 멋진 재벌남의 연애를 통해 로맨스 드라마의 전형을 비틀고 풍자해왔다. 그러나 변형된 로맨스 드라마들은 착하지도 예쁘지도 심지어는 젊지도 않은 여자도 재벌남을 욕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욕망의 민주주의를 확산시켰을 뿐, 욕망의 가부장적 성격을 비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구원자로서의 남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윤진명에게 구애를 시도하는 박재완은 고졸 출신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셰프로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신분이 취약한 남자이다. 그는 깊은 밤 편의점 건너편에서 피로하고 지친 그녀를 응시하지만, 그녀가 성희롱을 당하고 어두운 시골길을 걸어나올 때 슈퍼맨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에게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할 순간조차 그는 그녀의 소식을 모른다. 그럼에도 연애는 달달하고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진다. 이렇듯 이 드라마는 연애에 대한 환타지를 증가시키되, 그것을 신분상승을 위한 도약의 계기로 그리지 않는다. 진명은 혼자서 식물인간으로 오래도록 유명보다 못한 삶을 산 동생의 죽음을 맞고, 동생의 호흡기를 떼 엄마를 감옥에 보내는 슬픔을 경험한다. 그리고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재완과 상의없이 중국행을 결정한다. 재완은 섭섭하다며 투덜대지만 어쩔 수 없다. 인생은 저마다 각자에게 맡겨진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예은같은 평범한 여자들이 기대고 싶어하는 남자인 고두영은 스스로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에 개선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일 뿐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로 아버지의 경제력에 기생하면서 시간을 소비할 뿐 어떻게 자립해야 할 지 모른다. 그는 열등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여자를 필요로 하지만 열등감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진정한 사랑에 빠질 수 없는 불쌍하지만 위험한 남자인 것이다. 이 드라마는 고두영에게 납치당하는 예은을 통해 데이트 폭력 등의 로맨틱 드라마가 그간 침묵했던 연애의 어두운 측면을 이야기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젊은 남자들이 모델의 대상으로 여성화됨에 따라 연애와 여자를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트 폭력, 이별살인 등 흉흉한 사건들은 연애는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주

고 있다. 이 드라마는 이렇듯 주체의 불안과 이로 인한 폭력의 충동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젊은 여성들이 놓인 취약한 위치를 환기시킨다. 특히 이 모든 문제들은 통상적인 힘을 초과하는 우월한 존재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셰어하우스의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해결된다. 비록 판타지적 성격이 강하지만 이는 그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홀대하고 무시해온 여성 간 우정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4. 공감의 힘

프로이트는 웃음이나 농담을 인간이 고통을 줄이기 위한 감정의 경제학이라고 한 바 있다. 웃음은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즉 인간의 상처입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인간에게는 상처를 극복해 내 그것을 최소화할 에너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셰어’는 각자가 마치 칸칸이 나누어진 방 속에 고립되어 저마다의 슬픔이라는 병중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홀로주의 문화를 넘어설 단서가 될 수 있다. 비단 셰어하우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공감같은 감정이 인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인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고, 타인과의 대화와 소통 속에서 자기의 삶의 지평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방관과 무관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주는 개인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서로에 대한 공감 그것이 삶에 주는 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각자 계급도 처지도 과거의 기억도 경험도 각기 다른 다섯 명의 동거녀는 처음 그다지 끈끈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함께 있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서로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상처들을 서로 다른 인간을 엮어매 고립된 개인주의를 뛰어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개처럼 전진을 가로막는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드라마의 미덕은 이렇듯 홀로주의의 시대에 맞서 함께 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육체적으로 젊고 아직 성인처럼 소진하지 않은 탓에 불안과 고통을 잘 숨기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 실패해왔다. 청년들에게 노마드 주체, 자기계발하는 주체 등의 그렇듯한 이름을 던져두고 삶의 많은 문제들을 헤쳐 가기를 강요해옴으로써 실상 청년이 겪는 고통을 외면해왔다는 점은 반성을 요한다.